

후고 폰 호프만스탈의 오스트리아-유럽 담론*

- 코스모폴리타니즘인가? 제국의 노스탤지어인가?

탁 선 미 (한양대)

국문요약

1990년대 남동유럽 지역에서 다시 발화한 민족 간 갈등 및 분쟁은 민족국가를 규범으로 하는 사회구성체의 원리가 적어도 이 지역에서는 평화로운 국제정치 질서의 토대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드러냈다. 냉전 시기에 망각되었던 이 지역의 민족분쟁은 사실 1세기 이상을 거슬러가는 뿌리 깊은 것이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의 동유럽과 발칸은 첫째, 제국주의로 확대된 독일 및 러시아의 패권적 민족주의와 제국주의로 전환된 오스만과 합스부르크 제국의 충돌, 둘째, 이들 강대국들의 제국주의적 패권주의와 향토에 토대를 둔 피억압 민족들의 저항적 민족주의의 충돌, 셋째, 이들 피억압 민족들의 저항적 민족주의가 독립국가를 목표로 삼으면서 피억압 민족들 상호 간에 점화된 갈등과 충돌이 중첩되던 공간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 집중적으로 개선되었던 호프만스탈의 오스트리아-유럽 담론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해체라는 위기 앞에서 다민족-다문화 남동유럽 지역공간의 정치적 특수성을 이해하고 탈민족적 정치문화 공동체의 비전을 모색한 하나의 흥미로운 사례이다. 이 논문은 호프만스탈의 오스트리아-유럽 담론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을 통해, 이 담론이 한편에서 다민족-다문화적 유럽정치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지만 다른 한편 독일문화 중심의 ‘하나의 유럽’으로 귀결됨으로써 오스트리아의 현실적 상실을 보상하는 제국적 노스탤지어이기도 했음을 밝히고자 한다.

주제어: 호프만스탈, 오스트리아, 유럽, 발칸, 민족

I. 들어가는 말

세기말 빈의 천재적 모더니스트이자 유태주의자인 후고 폰 호프만스탈 Hugo von Hofmannsthal(1874-1929)은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그 이후 십여 년 이상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3927353).

놀랍게도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시대의 정치적 문제에 대해 발언해 왔다. 40세의 나이에 기대와 달리 보병으로 징집된 후 곧 국방부 보훈처의 대언론 부서로 옮겨간 그는 마치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듯 부지런히 독일인과 독일문화에 대해, 오스트리아의 유산과 과제에 대해, 그리고 전쟁 이후의 새로운 유럽에 대해 지식인으로서 발언을 이어갔다. 개전 초기 호프만스탈은 대다수 당시 독일인 지식인들처럼 전쟁의 발발을 새로운 시작으로 환영하고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영웅적 승리를 확신하였다.¹⁾ 그는 전쟁이 그 큰 희생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도덕성을 복원시켜서 자본주의와 당파성으로 인해 분열된 국가와 사회를 다시 하나의 공동체로 재탄생하도록 자극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쟁과 전쟁의 희생자들에 대한 이러한 도덕적 해석은 호프만스탈 혼자만의 것은 물론 아니었다. 헤르만 바르 Hermann Bahr의 ‘전쟁축복’론, 베르너 쾰바르트 Werner Sombart의 ‘영웅적 독일인’ 주장, 철학자 막스 셸러 Max Scheler의 ‘종합적 체험으로서의 전쟁’론은 모두 전쟁을 통해 혼란스러운 세기말의 아노미 경험이 극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었다.²⁾ 이들 부르주아 계급의 교양지식인들은 민족과 국가를 하나의 정신적 유기체로 바라보았고, 따라서 공동의 불행한 운명이 잊어버린 공동체정신을 되살릴 것으로 생각한 것이었다. 그러나 1871년 독일민족의 통일을 주도한 프로이센의 독일제국이 패권적 민족주의를 거리낌 없이 과시하던 것과 달리, 호프만스탈의 오스트리아 국가론에는 주목할 만한 차이점이 있었다. 그에게 독일인이라는 정체성과 독일문화의 이념이 오스트리아 국가론의 한 축이라면, 11개 민족이 공존하고 단결해야 한다는 오스트리아 제국의 현실 정치적 요구는 또 다른 축이었다. 비록 개전 초기에 전쟁을 직접적으로 미화하는 짧은 몇 개의 글을 발표하지만 호프만스탈의 정치적 에세이들은 대부분 유럽의 공존에 대한 고민을 드러내고 있다.³⁾ 그는 오스트리아 독일인들과 제국의 슬라브인들의 공존번영을

1) 호프만스탈은 부인 게르티 Gerty에게 쓴 편지에서 개전의 체험을 “채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위대함 eine solche Größe, dass es ja beinahe über das Fassungsvermögen geht”이라고 지칭하며 “이런 민족은 굴복시킬 수 없을 것 Ein solches Volk kann auch nicht besiegt werden”이라고 말했다(Thiel 2014).

2) Hermann Bahr: *Kriegsseggen*(1915, 원래 동명의 에세이는 『프라하일보 Prager Tageblatt』에 1914년 12월 24일 게재); Werner Sombart: *Händler und Helden*(1915); Max Scheler: *Der Genius des Krieges und der Deutsche Krieg*(1915); *Der Krieg als Gesamterlebnis*(1916). 전쟁이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촉진하는 요소라는 이러한 생각은 전쟁 후 오스발트 슈펜글러의 『서구의 몰락 Der Untergang des Abendlandes』(1918/1920)이라는 순환적 문명발전 역사이론으로 체계화된다(전진성 2001, 37-41; 민클러 2017, 91-94).

3) 호프만스탈은 약 30여 편의 정치적 에세이들을 썼다. 이 중 전쟁을 직접적으로 미화하는 글로는

주장하는 오스트리아슬라브주의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보편적 인문주의에 토대를 둔 탈민족주의적인 ‘하나의 유럽’을 주장하였다. 말하자면 그의 오스트리아-유럽 담론은 동시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내에서 확산되는 민족분쟁과 갈등, 그리고 유럽 강대국들의 패권적 민족주의가 빚어낸 세계대전이라는 무력분쟁에 직면해 자유주의적 부르주아 지식인으로서 해결책을 탐색하고 제시하려는 하나의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의 이러한 유럽 이념은 프랑스와 독일문화의 보편주의에서 출발하는 서유럽 중심의 관념적 이상이였다. 전쟁이 시작되자 이미 1915년부터 제국의 민족들이 제국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호프만스탈의 하나의 유럽 이념이 현실정치의 장에서는 무력한 상상이었을 뿐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냉전의 종식 이후 1990년대 이 남동유럽 지역에서 다시 발화한 민족 간 갈등 및 분쟁은 민족국가를 규범으로 삼는 사회구성체의 원리가 적어도 이 지역에서는 평화로운 국제정치 질서의 토대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뼈저리게 직시하게 만들었다. 제1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 호프만스탈이 정치적 연설문과 에세이에서 피력한 오스트리아-유럽 담론을 다시 긴급히 살펴 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⁵⁾

이 논문은 제1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 집중적으로 개진되었던 호프만스탈의 오스트리아-유럽 담론을, 동유럽과 발칸이라는 다민족·다문화 지역공간의 정치적 특수성을 이해하고 독일인의 입장에서 광역의 탈민족적 정치문화 모델을 구상했던 하나의 흥미로운 사례로 분석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 논문은 호프만스탈을 전쟁의 상흔을 딛고 독불 화해와 유럽통합의 메시지를 대변한 작가로 해석하는 1950년대 독일어권 호프만스탈 수용과는 분명하게 다른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또한 프랑스문화에 정통했던 호프만스탈의 세기말 모더니즘이 본질적으로 유럽

시 「오스트리아의 대답 Österreichs Antwort(1914)외에 보고형식의 에세이 「카르파티아의 정신 Geist der Karpathen(1915)을 꼽을 수 있다.

- 4) 오스트리아 제국의 권력질서 아래서 자민족의 변영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오스트리아슬라브주의 austroslavism은 19세기 중반까지 보헤미아를 중심으로 슬라브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던 정치적 이념이었다. 1866년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오스트리아가 패한 이후, 오스트리아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오스트리아의 미래를 슬라브인들과의 공존에서 찾아야한다는 주장이 비등해졌다. 자허-마조흐가 주장한 독일어를 매개로 한 오스트리아 범슬라브주의는 그런 대표적 경우 중 하나이다 (Vgl. Bach 2007).
- 5) 기존의 국내 호프만스탈 연구는 주로 그의 유태주의 미학이나 작품의 형식적 특성, 모티브와 주제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 대표적인 호프만스탈 연구자들의 다음 연구사례를 일별해보면 이러한 연구경향이 드러난다. 남정에 2015; 김재상 2013; 이성훈 2003. 따라서 이 논문은 국내 호프만스탈 연구에도 새로운 자극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적이었고, 따라서 종전 후 그가 적극적으로 개진한 통합된 하나의 유럽문화 이념은 그의 초기 예술적 관점에서부터 일관되게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오스트리아 독일어권의 연구와도 구분된다.⁶⁾ 오히려 필자는 호프만스탈이 유럽 예술과 문화에 과도하게 부여한 정신적 의미와 역할은 일차적으로 올바른 현실 인식에 대한 잘못된 대답이라고 판단한다. 즉 그는 독점자본주의의 정치경제적 질서의 붕괴, 제국주의적 충돌과 민족 분쟁, 사회문화적 아노미가 확산되는 전쟁 전 유럽의 상황을 주목하지만 그것을 정신적 혁명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상상하고 주장했던 소위 ‘보수혁명 die konservative Revolution’의 지식인 유형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프만스탈이 흥미로운 것은 그가 토마스 만이나 에른스트 윙어와 같은 독일제국의 독일인들과 달리 1871년 이후 오스트리아 다민족 국가의 정치적 위기와 남동유럽 슬라브 민족의 차별적 현실과 분쟁을 몸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⁷⁾ 그의 유럽 담론은 서유럽 중심의 유럽 통합을 견지하지만 동시에 동유럽 슬라브 민족들과 독일인들이 어떻게 공존해야하는 가에 대한 현실적 고민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이런 이중적 관점에서 호프만스탈의 정치적 에세이를 분석함으로써, 그의 오스트리아-유럽 담론에 내재된 모순적이고 복합적인 현실

6) 프란츠 슈펜 Franz Schüppen은 그의 2010년 논문에서 호프만스탈 수용과 연구사의 이러한 경향을 간략하게 보고하고 있다. 초대 독일 대통령이었던 테오도르 호이스 Heuss 외에 프라이부르크 정치학자 아르놀트 베르크슈트라스어 Arnold Bergstrasser도 전후 사회통합의 요구에 부응하는 하나의 수사학으로 호프만스탈의 유럽 이념을 상기시켰다. 슈펜은 1960년대 이후 세기말 유태주의 미학과 연계하여 호프만스탈의 유럽이념에 대한 해석을 주도한 독문학자들로서 게하르트 바우만 Gehart Baumann, 헤르만 쿠니시 Hermann Kunisch, 페터 크리스토프 Peter Christoph 등을 언급한다. 1990년대 프란츠 링크 Franz Link를 거쳐 슈펜 자신도 크게 볼 때, 이러한 전통에 서있다고 말할 수 있다(Schüppen 2010, 37-40).

7) 호프만스탈은 전쟁 발발 2년 전에 친구인 에베르하르트 폰 보덴하우젠 Eberhard von Bodenhausen에게 민족주의와 민족 갈등으로 인해 내부로부터 붕괴 상태에 이른 오스트리아 제국과 남동유럽의 정치질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에베르하르트, 여긴 모든 것이 암울하네. 우리 늙은 오스트리아는 암울하네. (...) 누구나 알고 있는 외적 상황이 최악이 아니네. 우리가 다른 국가들과 같은 하나의 국가라면, 우리는 행동하거나 - 혹은 행동을 차이로 밀어둘 수도 있을 걸세. (...) 내적 상황이 무서운 문제라네. 제국 내부의 남슬라브인들, 반쯤 폭동 상태인 세르비아인들과 크로아티아인들(...)만이 아니네. 보헤미아인들은 약의에 가득차서 이를 드러낸 채 기회를 엿보고 있고, 갈리치아 우크라이나인들 지역은 러시아 선동가들이 들쭉시키고 있고 - 이탈리아인들은 연방의 동지이지만 그만큼 적이기도 하네. 러시아는 그 반이 호시탐탐 우리와 싸우려고 들고 있네. - 내부에서는 반은 무감하고 반은 생각이 없고, 문제는 너무 복잡하고 풀 수 없게 꼬여있네. 콘라드 처럼 종종 용기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도 진정한 믿음이 없네. 우리는 어두운 시대를 향해 가고 있단네. 누구나 느끼지. 차츰차츰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 - 그리고 이게 최악인데 - 우리가 이기는 경우에도, 우리가 얻는 것은 사실 곤혹스러움일 뿐 다른 것이 없단네.” (An Eberhard von Bodenhausen, 30. 4. 1912. Hugo von Hofmannsthal - Eberhard von Bodenhausen, Briefe der Freundschaft, Düsseldorf 1953. Zit nach: Pawlowsky 2014, 1f.)

인식과 정치적 관심을 보다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독일 문학사에서 주로 세기말 빈의 상징주의 문학의 대표작가로 이해되는 호프만스탈의 작품들이 사실은 단일한 민족문학의 공간이 아니라 훨씬 복잡한 다민족·다문화의 제국적 공간에서 생산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새삼스레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호프만스탈의 오스트리아-유럽 담론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오스트리아 제국의 공간이었던 남동유럽과 발칸의 정치적 시의성과 국제정치적 갈등의 구조를 간략히 살펴보겠다.

II. (남)동유럽 문제: 민족과 제국 사이

2015년 독일어협회 Gesellschaft für deutsche Sprache가 선정한 올해의 단어는 ‘난민 Flüchtlinge’이었다. 시리아와 근동으로부터 대량으로 유입되는 난민문제는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들 간의 갈등을 현재도 고조시키고 있으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라는 충격적 결과로까지 이어졌다. 국제분쟁 문제에 최고의 전문가 중 한명인 훔볼트대학 헤어프리트 뮌클러 Herfried Münkler 교수는 비록 이러한 대규모 난민문제가 현재의 유럽 정치질서를 위기에 빠뜨리는 가장 직접적 원인인 것은 사실이나, 이 난민문제의 배경에는 보다 위협적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1989/90년 동서냉전 종식 이후 격화된 새로운 전쟁 폭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시리아 내전이나 중앙아시아의 무력 분쟁, 레반트와 아프리카 지역 무장집단들의 준동에서 보듯이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와 외교안보의 제국적 동맹질서가 물러난 공백 지역에서 전쟁폭력이 새롭게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사회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합병 및 우크라이나동부의 전쟁을 목도하고서야 비로소 기대했던 평화의 시대가 전혀 도래 하지 않았음을 실감하는데, 사실 유럽은 소위 ‘평화의 1990년대’에 이미 “그 주변부에서 중심을 향해 폭력이 천천히 침식해 들어가는”(뮌클러 2017, 18)구도에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뮌클러가 주목하는 1990년대 유럽 주변부의 새로운 폭력은 무엇보다 일련의 유고연방 해체전쟁들⁸⁾이다. 1991년 슬로베니아 독립전쟁에서 시작해 보스니아

8) 구유고연방의 해체전쟁은 세르비아와 연방 내 타 민족 간의 일련의 무력 분쟁을 일컫는다. 슬로

전쟁(1992-1995)과 코소보 전쟁(1998-1999) 등 약 십여 년 간 구 유고연방의 여러 소속 공화국들을 옮겨가며 발화하여, 약 이십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낳은 유고해체전쟁의 후유증은 실제로 현재 유럽 난민위기의 중요한 한 원인이다. 2015년 8월 독일 이민청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의 통계에 따르면 당해년도 6월말까지 확인된 난민 일차 신청자 약 19만 명 중 구 서부 발칸 국가들, 즉 코소보(28.672명), 알바니아(21.806명), 세르비아(10.126명), 마케도니아(4182명) 등 출신은 총 7만 8천 명 정도로 시리아 출신 난민 약 3만 2천명의 두 배 이상에 달한다.⁹⁾ 유럽 주변부와 주변부 너머 외곽지역에서 안정적 정치권력이 무너지고 무장 세력 간 충돌이 격화되는 상황이 유럽 중심부로의 대량 난민과 테러의 역류로 나타나는 것이다. 게르만 민족과 슬라브 민족, 가톨릭 및 개신교 서방교회와 동방의 정교회,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이 만나고 충돌하는 남동유럽의 정치 질서가 요동치고 무너지면서, 그 파괴적 힘이 유럽 핵심부의 정치적 질서로 역류하는 경험을 유럽은 유고해체전쟁 약 80여 년 전에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한 바 있다. 사실 20세기 동유럽과 발칸반도의 불안정한 지정학적 질서는 제1차 세계대전 훨씬 이전 상황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당시 발칸반도 대부분을 지배하던 오스만 제국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동유럽과 발칸 지역은 오스만제국 외에도 독일과 러시아제국, 그리고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견제와 경쟁이 교차하는 곳이었다. 1871년 프로이센의 독일통일 이후 동유럽과 발칸의 크고 작은 민족들의 민족운동, 특히 슬라브 민족운동이 더욱 격해지면서, 오랫동안 향토에 자리 잡고 살던 다양한 민족들은 안정적인 그러나 위계적인 제국의 정치질서에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고 민족자치와 국가독립을 추구하기 시작했다.¹⁰⁾ 가라타니 고진에 의하면 이것은 민족들이 이제 ‘제국’을 ‘제국주의’로

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가 분리 독립한 1991년에서 1995년까지의 전쟁들, 즉 슬로베니아 10일 전쟁(1991), 크로아티아 독립전쟁(1991-1995), 크로아티아-보스니아 전쟁(1992-1994), 보스니아 전쟁(1992-1995)이 가장 중요한 분쟁이었다. 나토와 미국이 적극 개입한 1995년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알바니아인들 지역을 중심으로 공화국들이 분리, 독립하려는 전쟁들, 즉 코소보 내전(1998-1999), 프레세보 계곡 전쟁 (1999-2001) 마케도니아 전쟁(2001)이 이어졌다.

- 9) “Dem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zufolge waren unter den etwa 190.000 Asylanträgen in der ersten Jahreshälfte rund 78.000 von Immigranten aus Staaten des Westbalkans - also aus Serbien, Albanien, Mazedonien und dem Kosovo.” (Maxwill 2015)
- 10) 이 논문에서는 민족과 민족국가, 제국과 제국주의를 구분해서 사용한다. 민족은 장기간에 거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공동생활 집단으로, 공간적으로는 향토 또는 지역에 연계되어 있다. 그에 비해 민족국가는 절대적인 영토주권과 연계된 근대적인 사회구성체로, 민족국가의 민족은 베네딕트 앤더슨의 의미에서 문화와 정치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된 집단주체이다(앤더슨 2003). 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하나의 변환점이다(카라타니 고진 2014, 210-212).

1918년 패전으로 느슨하지만 균형을 유지하며 6백여 년 간 존속했던 다민족 합스부르크 제국은 와해되고, 민족자결권을 지지한 서유럽 승전국들의 동의하에 동유럽과 발칸은 크고 작은 슬라브 신생독립국가들로 분절되었다. 하지만 제국들의 경쟁을 일소한 새로운 국경과 정치질서 하에서도 분쟁은 해소되지 못했다. 왜냐면 민족국가의 배타적 영토경계는 민족들의 실제 거주지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이제 경계 내 공간은 균일한 민족 집단의 것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발칸의 신생 독립국가들은 여전히 영토 내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그 갈등은 유고해체전쟁을 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강성호 외 2009, 90-93). 예를 들면 민족국가인 세르비아의 코소보 지역은 알바니아계 무슬림들의 향토 지역으로, 코소보가 자치공화국을 넘어 독립을 선언하면서 그 안에 거주하는 세르비아 정교도들의 배제와 차별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코소보 경계 밖의 세르비아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있다. 사실 로마제국이나 몽골제국 또는 작은 규모로는 합스부르크 제국 정도를 제외하고 대항해시대와 산업화 시대 이후의 제국, 즉 대영제국, 스페인제국, 독일제국 및 러시아제국, 일본제국은 민족국가의 패권주의가 확대된 제국주의라는 것이 오늘날 제국 연구자들의 일반적 시각이다. 즉 영토와 국민주권의 신성함을 제1 원리로 삼는 근대의 자본주의 민족국가들은 ‘생활권 Lebensraum’ 또는 ‘공존번영 common wealth’의 개념 아래, 자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와 군사·외교적 영향권의 확대를 늘 추구하였다. 정리하자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의 동유럽과 발칸은 첫째, 제국주의로 확대된 독일 및 러시아의 패권적 민족주의와 제국주의로 전환된 오스만과 합스부르크 제국의 충돌, 둘째, 이들 강대국들의 제국주의적 패권주의와 향토에 토대를 둔 피억압 민족들의 저항적 민족주의의 충돌, 셋째, 이들 피억압 민족들의 저항적 민족주의가 독립국가를 목표로 삼으면서 다시 피억압 민족들 상호 간에 점화된 갈등과 충돌이 중첩되어 교차하던 공간이었다.

따라서 다민족 다문화 사회인 동유럽과 발칸반도의 정치질서를 어떤 공간구

국은 다양한 지역과 민족을 포괄하는 광역의 정치경제 및 사회 질서로, 좁은 의미에서는 민족주권이라는 정치 규범이 탄생하기 이전의 사회구성체이다. 그에 반해 좁은 의미의 제국주의는 민족국가의 영향권 확장이라는 패권적 의지와 상관이 있다. 하지만 역사적 제국 내부에서 지역의 민족들이 국가적 독립의지를 갖게 되면 제국의 통치 질서는 대부분 억압적인 제국주의적 질서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제국이론들을 참조할 수 있다. 네그리; 하트 2001; 뮌클러 2015; 가라타니 고진 2014.

범과 집단정체성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평가는 매우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상이한 시각은 동시대 부르주아 지식인들 내에서도 확인된다. 예를 들면 동시대 빈 출신인 경제학자 슈페터(1883-1950)가 자본주의 민족국가의 진보성을 강조하며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을 시대에서 탈락한 권위적 절대군주국가로 폄하했던데 반해(슈페터 2011, 119-123), 빈의 문화계와 지식계의 대표적 진보 지식인이었던 슈테판 츠바이크(1881-1942)는 민족의 경계를 넘어 자유로운 이동과 공존을 가능하게 했던 제국의 세계시민적 질서에 주목하고 그 해체를 커다란 상실로 해석하였다(슈테판 츠바이크 2014, 17-19). 1990년대 발칸의 분쟁은 위에서 언급한,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폭발했던 이 지역의 국제정치적 문제 상황이 냉전의 동서 동맹 시대와 UN시대, 그리고 EU와 통합유럽의 시대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서구사회가 1990년대 발칸분쟁에 당황하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민족국가’와 ‘민족국가들 간의 자유로운 연합’이라는 현대 국제정치의 규범이 현재의 갈등과 무력분쟁을 해결하는데 전혀 충분치 않다는 사실에 직면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호프만스탈의 오스트리아-유럽 담론에 대한 분석은 이 분쟁지역에서 평화의 전제가 되어야 할 국제정치의 규범을 다시 고민하는데도 하나의 작은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호프만스탈의 오스트리아-유럽 담론

1. 오스트리아: 유럽과 슬라브 세계의 중재자

1914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이 세르비아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 세르비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한 러시아에 대해 동년 8월 1일 독일제국이 선전포고를 하면서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은 발발 당시 독일의 대다수 보수적 자유주의적 시민계층과 그 지식인들의 환영을 받았다.¹¹⁾ 토마스 만의 장문의 에세이집 『한 비정치적 인간의 고찰 Betrachtungen eines Unpolitischen』(1914-18)이 잘 보

11) 토마스 만 이외에 케르 Alfred Kerr, 무질, 데멜 Richard Dehmel, 하우프트만 등은 전쟁 발발 초기 독일 참전의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에 비해 하인리히 만, 슈테판 츠바이크, 헤세, 슈니츨러는 처음부터 반전주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여주듯이, 이들 부르주아 지식인들은 전쟁을 현실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보다 정신적이고 이념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면서 독일인들의 입장을 옹호하였다. 1914년 9월 24일 이제 막 국방부 보훈처 대언론 담당부서장으로 지명된 호프만스탈은 영웅적 투쟁정신과 애국심이 가득한 「오스트리아의 대답」(1979c, 208)¹²⁾이라는 아래와 같은 시를 발표한다.

대답은 저기 전장에서,
 굳게 움켜쥔 주먹이 한다,
 너에게 줄 대답은 단 한마디:
 저것(오스트리아)을 신이여 보호하소서!
 (.....)
 산은 허약한 방벽이다,
 사이와 틈이 있다:
 가슴과 가슴이, 민족과 민족이 맞대고
 외치는 도다: 신이여 보호하소서!
 (.....)
 무시무시한 것이 오늘
 이 오래된 신성한 존재를 에워싼다,
 그래서 하늘 높이 올려 퍼진다:
 신이여 이 나라를 보호하소서!¹³⁾

「오스트리아의 대답」은 인젤 출판사 창간인이자 브레멘의 동료시인 슈뢰더 Rudolf Alexander Schröder의 열광적 호소, “오스트리아는 낙담하지 말지어니 Österreich möge nicht verzagen”(Balke 2014) 라는 호소에 대한 대답이었다. 매 4행으로 구성된 총 5연의 이 시의 모두에는 하나의 수사학적 물음, “야전막사의 온갖 민족들, 열정이 이들을 하나로 만들 것인가? 오스트리아, 다채로운 풍광과 지역들, 너는 위기를 막아낼 것인가? Völker bunt im Feldgezelt,/ Wird die Glut

12) 호프만스탈의 1차 문헌은 발행연도와 인용 지면으로 축약해 기입한다.

13) Antwort gibt im Felde dort, / Faust, die festgeballte, / Antwort dir gibt nur ein Wort: / Jenes Gott erhalte! // (.....) // Berge sind ein schwacher Wall, / Haben Kluft und Spalte: / Brust an Brust und Volk bei Volk / Schallt es: Gott erhalte! // (.....) // Ungeheueres umfasst / Heut dies heilig Alte, / Und so dringts zum Himmel auf: / Unser Gott erhalte! (2연과 4연을 제외하고 1,3,5연만 인용하였음.)

sie löten?/ Österreich, Erdreich vieler Art,/ Trotzest du den Nöten?”라는 물음이 화두처럼 던져져 있다. 시는 오스트리아를 ‘오래된 신성한 존재’로 지칭하며, 이 신성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방과 후방, 선대와 후대, 민족과 민족이 하나가 되었다고 선언한다. 이처럼 시간과 공간을 관통하며 하나가 된 오스트리아, 모든 신민들의 하나뿐인 조국을 수호하는데 신적 의지가 함께 하기를 반복적으로 기원하며 시는 종결된다. 앞서 본 것처럼 이미 전쟁 발발 2년 전에 호프만스탈이 한 편지에서 위기가 가득한 제국 내부의 상황을 묘사했던 것을 떠올려보면, 20행의 이 짙막한 시는 그가 상상하는 이상적인 오스트리아 제국의 모습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중세 이래 기나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연적이고 필연적으로 형성되어온 민족들의 연합국가적 공동체이다. 그의 또 다른 애국적 에세이 「카르파티아의 정신」(1979a, 411-416) 역시 조국수호의 영웅적 현장에서 병사들이 어떻게 “단순한 무리에서 aus einer bloßen Masse” “하나의 군대 ein Heer von Soldaten”(1979a, 413)로, 어떻게 민족적 차이를 넘어 하나의 진정한 국민공동체로 융합되는지 생생히 묘사한다.

돌격하는 병사들이 그 옆에서 돌격하는 다른 병사들에게 소리친다. 크로아티아인들이 ‘꽃을 든’ 자들에게, 보스니아인들이 케른텐 사람들에게, 잘츠부르크 사람들이 빈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한 마기에라의 땅 위로 티롤인들이 기도하며 쓰러지고 있다. (...) und der Zuruf der Stürmenden an die Stürmenden neben ihnen, der Kroaten an die “mit den Blumen”, der Bosnier an die Kärntner, der Salzburger an die Wiener, und das Niedersinken der betenden Tiroler auf der erstürmten Magiera.” (1979a, 415)

전 유럽적 전쟁이라는 커다란 위기 앞에서 제국의 여러 민족들이 한 마음으로 조국 오스트리아를 수호할 것을 호소하고 상상하는 호프만스탈의 위 글들은 일차적으로 강력한 연합군에 맞선 제국 신민들의 전투의지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글들은 전쟁 훨씬 이전부터 점점 높아지고 있는 제국 해체의 조짐을 부정하고 막아내려는 정치적 시도이기도 했다. 이런 해체의 조짐은 1848년 이후 시작되어 1866년의 소위 ‘타협 Ausgleich’으로 일차 봉인되는 듯이 보였으나, 그것은 새로운 분열의 시작이기도 했다. 헝가리의 독립 시도를 막아내고 오스트리아의 국왕이 헝가리의 왕관을 계승하는데 합의한 1866년의

타협은 분명 잠정적으로는 제국의 정치적 생명을 이어주고 유럽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지켜내는데 도움을 주었다.¹⁴⁾ 하지만 제국 내 헝가리인들 외 소수 민족들의¹⁵⁾ 민족주의와 정치적 독립의 열망은 전혀 수그러들지 않았다.¹⁶⁾ 비록 체코인들과 같은 소수 슬라브 민족들 사이에서 제국의 존속을 전제로 민족의 완전한 자치와 법적, 사회적 평등을 지향하는 오스트리아슬라브주의가 19세기 전 기간에 그 유효성을 잃지는 않았으나, 1866년의 ‘타협’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불만과 독립의지를 더욱 키우게 만들었다(강성호 외 2009, 15 이하). 제국에 우호적이던 크로아티아인들도 헝가리 왕국의 통제 하에 자신들을 밀어 넣은 ‘타협’에 불만이 컸다. 전쟁의 진행과 함께 현실은 호프만스탈의 시가 소망하는 단결된 민족들의 이상적 제국의 모습과는 점점 반대로 흘러갔다. 1915년 5월에는 트렌티노, 오스트리아 연해 지방, 피우메, 달마티아 지역을 원했던 이탈리아가, 1916년 8월에는 연합국으로부터 트란실바니아와 바나트와 같은 제국 내 루마니아인 영토를 보장받은 루마니아가 제국에 등을 돌렸다. 그리고 1917년 이후로는 독립을 갈망했던 체코인들이 국외 군단을 조직해 제국에 대항하였다. 설상가상으로 1866년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의 패배, 1870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에서 프로이센의 승리, 1871년 프로이센 주도 하의 독일민족의 통일이라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가 주도권을 쥐는 대독일 통합’이라는 민족적 정

14) 합스부르크 제국은 “60만 킬로미터 이상의 영토와 3천 5백만 명의 인구, 백만 명의 동원 가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영토로는 프랑스와 통일 독일보다 광대했고, 인구는 러시아, 독일 다음이며 프랑스와 대등하였다. 다만 그 영토적 인구학적 규모에 비해 “석탄과 철의 생산은 벨기에보다 20배” 적었다. 당시 서유럽 국가들에서 전 인구의 1/2 내지 1/3이 산업 분야에 종사한데 반해, 제국은 1/10 수준이었다. 철도와 도로망과 같은 사회간접자본도 원시적 수준이어서, 경제적으로는 “서유럽의 선진 산업국과 동유럽의 후진 농업국 사이의 중간에” 위치하였으며, 정치적으로는 입헌군주제에 따라 “폭넓은 계층에게 광범위한 정치활동을 허용했지만, 제도화한 반민주주의와 절대주의의 묵인”은 대중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방해하였다(디오세기 이슈트반 2013, 23 이하).

15) 1910년 공식 통계에 따르면, 제국의 총 인구는 5천1백만 39만 명이다. 1905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점령으로 제국은 1866년의 11개 민족에서 12개 민족으로 확대되었다. 이 12개 민족별 구성을 보면 오스트리아-독일인(23.9%), 헝가리인(20.2%), 체코인(12.6%), 폴란드인(10.0%), 우크라이나인(7.9%), 루마니아인(6.4%), 크로아티아인(5.4%), 세르비아인(3.8%), 슬로바키아인(3.8%), 슬로베니아인(2.6%), 이탈리아인(2.0%), 세르보-크로아티아 무슬림(1.2%)이었다(Weiler 2001, 1).

16) 특히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의 5개 민족을 제외한 다른 6개 민족은 제국과 국경으로 연결한 이웃 민족국가나 민족공동체에 속해 있었다. 제국 내 소수민족들은 한 편으로는 중세적 자립성의 전통에서 제국 중심으로부터의 통제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다른 한편 현대적 민족국가 정치이념의 등장 이래 제국 외부의 각각의 민족공동체로 흡입 되려는 원시력의 작용을 받고 있었다(디오세기 이슈트반 2013, 25).

치적 야망 역시 진즉에 포기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비록 프로이센이 중심이 된 독일민족의 민족운동과 다민족 오스트리아의 존재가 국제정치적으로 충분히 양립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기는 했지만, 유럽 중앙지역에 광범위하게 포진한 독일인들 전체를 위한 국가가 되겠다는 오스트리아의 이상은 현실적으로 최종적으로 좌절된 상태였다. 즉 이제 중유럽 강대국으로서의 위상과 정체성을 견지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독일인들에게 남겨진 영토적 공간은 슬라브인들이 다수를 이루는 동유럽과 오스만 제국의 지배력이 약화된 다민족, 다종교, 다문화 발칸지역 뿐이었던 것이다.

1866년 이후 이처럼 격변하였던 오스트리아 제국의 역사적 현실을 고려하면, 호프만스탈이 그의 「그릴파르처의 정치적 유산 Grillparzers politisches Vermächtnis」에서 그리는, “공동의 고향에서 다양한 민족들이 공존 Zusammenleben(s) gemischter Völker in gemeinsamer Heimat”하고 “관용적 생명력 die tolerante Vitalität”(1979a, 409)이 지배하는 제국의 이상적 모습은 오히려 현실주의적 필요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민족-다문화적 상황을 서유럽 강대국 및 독일제국과 구분되는 오스트리아만의 특징과 장점으로 호프만스탈이 이해하였다는 것은 그의 일련의 에세이, 「오스트리아에 대한 긍정 Die Bejahung Österreichs」(1914), 「우리 오스트리아인과 독일 Wir Österreicher und Deutschland」(1915), 「그릴파르처의 정치적 유산」(1915), 「오스트리아의 이념 Die österreichische Idee」(1917) 등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오스트리아의 이념」에서 “민족들의 덩어리”, 또는 “묶음”(1979a, 454)이라고 폄하되는 제국이 그 오랜 역사와 더불어 “남동부 및 유럽과 오리엔트를 연결하는 가장 긴 강을 낀 지배적 위치”(1979a, 455)와 관련해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총체성 안에서 통용되는 극단들을 삶을 촉진하는 구도로”, “우리에게 익숙한 내적 긴장과 위기(를) 유럽적 갈등의 근본에 있는 가장 심대한 문제의 선취로”(1979a, 455) 이해하자고 격려한다. 그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이념은 무엇보다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오스트리아에 내포된 양극성”, 즉 “유럽 제국과 그 제국 앞에 놓인 언제나 혼란스럽게 유동하는 반-유럽 반-아시아 민족들의 무리 사이의 경계지역, 경계 방법, 차단막이 되는 동시에 유동적인 경계, 즉 식민화와 침투, 동쪽으로 전파되는 문화의 물결의 시작점, 그러니까 받아들이면서 다시 서쪽으로 향하는 역방향의 물결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 그런 내적 양극성”(1979a, 456)¹⁷⁾에 근거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눈에 동시대 영국과 프랑스인들은 일면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외국어의

거부? Boykott fremder Sprachen?」(1914)에서 소개되는, 서유럽인들의 동유럽에 대한 무지와 자기중심주의를 비판하는 에피소드들은 호프만스탈이 서유럽 문화에 대한 동경과 존경에도 불구하고 그들과는 다른 공간적 집단적 소속감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알려준다. 조국의 지역들마다 지닌 풍광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자신에게 프랑스 동료 작가 모리스 메테를링크가 던진 “그 나라들에도 철도가 있냐”는 질문, 그리고 한 프랑스 장관이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대사 부인에게 던진 말들, “그녀가 서유럽에서는 베일 없이 그리고 보호자 없이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으니만큼 여기서 특히 더 편하게 느끼지 않냐”는 질문, 또 헝가리로 초대받은 프랑스 총리 프레씨네 Charles de Freycinet가 헝가리에서 “아름다운 풍광과 많이 들었던 모스크를 기대”(1979a, 353)하겠다는 답변을 호프만스탈은 프랑스인들의 타민족과 타문화에 대한 몰이해와 자국 중심주의에 대한 증거로 내세운다. 그는 오스트리아가 비록 전쟁 중이라고 해도 절대로 외국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호프만스탈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이러한 탈민족적인 정치문화는 오스트리아가 그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가 강요한 문명의 교두보와 중개자라는 역사적 역할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다. 호프만스탈은 그런 정치문화가 다민족-다문화 국가인 오스트리아에게 자국과 유럽의 현대정치적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도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오스트리아의 이념」에서 1848-1914년의 시기 “전 세계가 오로지 민족의 문제에만 몰두”해서 신생 슬라브 민족들에 대한 균형 감각을 잃었을 때, 오스트리아인들은 “1859-1866년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일차 (...) 과거의 초국가적 유럽 정책을 청산해야 했지만,” 그 다음 몇 십 년 간 “민족적 문제를 제대로 포함하고 통합한 가운데 새로운 초국가적 유럽적 정치의 근간”(1979a, 457)을 이해하는 내적 준비 작업을 해왔다고 자평한다. 그래서 그는 ‘오스트리아의 이념’, ‘오스트리아의 유일한 과제’이자 ‘존재이유’를 “구유럽의 라틴-게르만 세계와 신-유럽의 슬라브 세계의 조율 Ausgleich der alteuropäischen lateinisch-germanischen mit der neu-europäischen Slawenwelt”(1979a, 456 이하)이라고 단언하면서, “새로운 초민족적

17) “Das Wesen dieser Idee (...) liegt in ihrer inneren Polarität: in der Antithese, die sie in sich schließt: zugleich Grenzmark, Grenzwall, Abschluß zu sein zwischen dem europäischen Imperium und einem, dessen Toren vorlagernden, stets chaotisch bewegten Völkergemeine Halb-Europa, Halb-Asien und zugleich fließende Grenze zu sein, Ausgangspunkt der Kolonisation, der Penetration, der sich nach Osten fortplantenden Kulturwellen, ja empfangend auch wieder und bereit zu empfangen die westwärts strebende Gegenwelle.”

인 유럽 정치 eine neue überationale europäische Politik”(1979a, 457)를 위해 오스트리아의 다민족 다문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호프만스탈의 초민족적 다문화 오스트리아의 이념은 서유럽 민족주의가 1848 혁명의 실패 이후 공화주의 이념과 결별하고 패권적인 민족국가로 변형·발전하는 19세기 후반의 상황을 염두에 둘 때, 분명 미래지향적이고 대안적인 정치적 관점을 내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갈등은 19세기 후반 오스트리아 제국 내에서도 불거진 것으로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가 다민족의 공존이라는 오스트리아 제국의 이념을 대변한다면, 1897년 비인의 시장으로 취임한 카를 뤼거 Karl Lueger는 기독교 정신을 내세우며 독일인들의 조국 오스트리아를 주창한다. 뤼거는 황제에 맞서면서, 외국인 세력을 성토하고 노골적으로 반유대주의적 선동을 일삼으며 당대 대표적인 극우 정치가로 성장하였다(타임 라이프 북스, 120 이하).

2. 오스트리아 제국에서 ‘하나의 유럽’으로

하지만 호프만스탈이 민족 간 그리고 문명 간에 존재하는 위계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 오스트리아인과 독일」에 따르면 오스트리아는 동쪽과 남쪽을 향해서는 “주는 나라”이며, 서쪽과 북쪽으로부터는 “받는 나라”이다. 독일인들로부터는 언제나 “흘러드는 민족의 정신적 자산”(1979a, 394)을 받았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에 대한 긍정」에서 호프만스탈은 오스트리아를 터키의 침략으로부터 구한 영웅 오이겐 폰 사보이 Eugen von Savoyen(1663~1736)는 프랑스인이었다는 것을 지적한다(1979a, 359). 오스트리아의 이러한 교류와 중개자적 역할에 대한 이해에는 당시 유럽 부르주아 지식인들이 공유했던 고유한 유럽표상이 그 배경에 있다. 개인주의와 민주주의, 합리주의와 기술문명, 현대적 예술과 문화를 선도하는 ‘서유럽’ 대 봉건적 농업사회의 틀이 여전히 지배하는 뒤쳐진 ‘슬라브인들의 동유럽’이라는 이분법적 공간 이해는 물론 어느 정도 현실의 경험과 상관성이 있었다. 이것은 동유럽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통용되었던 개념이었다. 주목할 것은 역사적 통시적 관점에서 발생한 이 현대화 과정의 차이를 공식적이고 본질적인 차이로 전환시키는 언어적 변환이다. 즉 서유럽은 고유한 의미에서 ‘유럽’으로 동유럽은 ‘아시아’적 공간으로 정의됨으로서, 동유럽의 타자화 더 나아가 아시아의 타자화가 수반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도스토예프스키(1821-1881)는 그의 「겨울에 쓴 유럽의 여름인상기」(1863)에서 파리로

가는 기차에 앉아서 “도대체 유럽은 왜 우리 모두에게 그토록 강한 인상을 주며, 미술 같은 매혹적인 인상을 주는 것인가?” 자문한다. 그러면서, 러시아인들의 현재까지의 발전이 이 “신성한 기적의 나라에서 온 것”인데 자신들이 “아직도 유럽인으로 거듭나지”(도스토예프스키 1999, 34 이하) 못했다고 자책한다. 물론 도스토예프스키의 이 이분법은 곧이어 서유럽 사회의 물질주의와 위선에 대한 실망을 거쳐 러시아의 순수한 도덕성에 대한 찬미로 전복된다. 1922년 발표한 「유럽의 정신적 상태를 바라보며 Blick auf den geistigen Zustand Europas」에서 호프만스탈은 기독교와 라틴 고전주의에 기반을 둔 유럽 문화에 대비해 “아시아를 지향하는 러시아 das zu Asien tendierende Rußland”를 구분하며, 가톨릭, 루터교, 청교도를 포괄하는 “전체 유럽 기독교 das ganze europäische Christentum”에 비해 정교는 “동방적 기독교 ein orientalisches Christentum”(1979a, 481)라고 규정한다. 전쟁 기간 중 발표한 「유럽의 이념」에서도 그는 이미 도스토예프스키와 톨스토이의 유럽비판, 즉 “러시아-비잔틴의 이데올로기는 사실 유럽의 잔해물이며, 유럽 대륙성과 생명력의 비판”(1979a, 47)이라고 주장한 바 있었다. 1925년 프랑스 식민지인 북아프리카 모로코 페스를 방문한 호프만스탈이 도시의 낯선 인상을 유럽인으로서 이국적이고 감각적으로 탐닉한 여행기를 떠올리면, 동방으로 규정된 러시아와 슬라브 민족들에 대한 작가의 문화적 위계 의식을 추정해 볼 수 있다(Bermann 1998). 종전 후 새로운 유럽에 대한 소망을 피력한 여러 글에서 호프만스탈은 제1차 세계대전을 무엇보다 물질주의와 도덕적 타락에 매몰된 서유럽 국가들이 관용과 공존, 시혜와 용인이라는 제국의 윤리를 망각하고 이방의 동유럽 슬라브 민족과 그 국가들에 대해 패권주의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초래된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드러낸다. 전쟁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개전의 1차 원인이 세르비아 민족주의 운동과 러시아의 슬라브주의 외교군사 정책에 있다는 점에서는 정당하지만, 영국과 프랑스가 러시아와 같은 편으로 참전하였으며, 무엇보다 독일의 제국주의적 패권 경쟁이 전쟁을 확산시켰다는 것을 생각하면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었다.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동유럽과 발칸의 슬라브 민족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호프만스탈의 제국의 이상은 어느덧 서유럽이 이끌고 슬라브 동유럽이 부응하며 호혜 공존하는 ‘새로운 하나의 유럽’으로 전치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하나의 유럽이라는 이념은 해체를 눈앞에 둔 오스트리아 제국을 관념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위장된 노스텔지어일 수 있음이 드러난다.¹⁸⁾ 호프만스탈의 이중 선언, 즉 “오스트리아야말로 그 어떤 다른 국가들보다 하나

의 유럽을 필요로 하며, - 오스트리아는 그 자체로 작은 규모의 유럽이다.” (1979a, 417)¹⁹⁾ 라는 주장은 그의 오스트리아-유럽 담론의 이중적 의미망, 즉 한편으로는 탈민족적 정치질서의 비전이며 다른 한편으로 서유럽의 프랑스와 독일 민족이 중심이 된 제국적 질서에 대한 동경이라는 이중적 의미망을 염두에 둘 때 보다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독일문화: 유럽 정신의 계승자

앞서 언급했듯이, 예상과 달리 장기전이 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소수민족들은 차례로 제국에 등을 돌렸다. 무엇보다 오스트리아인들에게 헝가리 다음으로 중요했던 체코인들의 이탈은 호프만스탈의 오스트리아 이념이 현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는 증거이다. 실제로 작가의 직접적인 정치적 대언론 활동은 1917년을 전후해서 줄어들었으며 이후로는 주로 문화와 문화, 예술 관련 에세이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보수혁명을 주창한 것으로 유명한 호프만스탈의 1924년 뮌헨대학 강연 논문 「민족의 정신적 공간으로서 문학 Das Schriftum als geistiger Raum der Nation」²⁰⁾은 작가의 관심이 국가에서 문화로, 오스트리아의 다문화적 정치적 정체성에서 독일문화의 인문주의와 관용의 전통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경험적 현실에서 유래하는 다민족·다문화 오스트리아-유럽공동체라는 정치적 비전이 유럽적 독일문화론으로 교체되

-
- 18) 종전 후 독일과 통합을 원했으나 연합국 측의 금지로 ‘소국가 Kleinstaat’로 머물러야 했던 오스트리아의 정치가와 지식인들에게 유럽담론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대안적 정치 이념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오스트리아 정치가 쿠덴호베-칼레르기 Coudenhove-Kalergie로 그는 열렬한 유럽 지지자였고, 그의 범유럽 구상은 후에 유럽통합 과정에서 하나의 중요한 이론적 근거로 수용되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에서 발흥한 범유럽 운동은 전쟁 이후 오스트리아인들이 택할 수 밖에 없는 정치적 비전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독일사 연구자인 강성호도 유사한 입장을 표방한다(강성호 외 2009, 90-135).
- 19) 1915년 스웨덴의 진보적 유명 일간지 『스벤스카 다그블라데트 Svenska Dagbladet』는 유럽의 명망 있는 지식인과 작가들에게 위기에 처한 유럽의 미래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호프만스탈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 신유럽의 전망을 피력하며 중립국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역할을 기대하는 「전쟁과 문화 Krieg und Kultur」를 투고하였다. 이 글에서 그는 자신이 오스트리아인으로서 유럽 문제에 얼마나 큰 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지 강조한다.
- 20) 이 강연 원고의 제목에서 언급된 ‘das Schriftum’은 좁은 의미의 문학만이 아니라 ‘글’의 의미로 저널리즘, 역사문헌 역시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글을 단순히 소통의 매체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축적된 창의적 정신문화적 의미자원의 저장고로 이해한다는 면에서 넓은 의미의 문학으로 표현해도 좋을 것이다. 이 논문의 영어 제목은 *The Written Word as the Spiritual Space of the Nation* 이다.

고 중첩되는 현상은 사실 전쟁 중 발표된 작가의 연설과 에세이에서도 이미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오스트리아의 부르주아 계급은 무엇보다 국가의 보존을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슬라브인들의 민족주의가 비등해지는 가운데도 오스트리아를 여전히 안정과 공존을 보장하는 제국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어했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호프만스탈은 오스트리아를 이처럼 이상적 제국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무엇보다 16-18세기 상생의 통합적 독일-유럽적 정신, 즉 독일 인문주의 운동의 관용의 정신과 낭만주의 지식인들의 세계시민주의가 바로 여기 오스트리아 제국 공간에서 실현되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16세기 독일 인문주의 운동에서 시작해 계몽의 18세기 헤르더와 실러, 괴테와 노발리스에서 꽃피운 인간 중심주의와 세계시민주의적인 정치이념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민족국가의 형성이 뒤늦었던 독일 지식인들 사이에 확산되었던 이념적 표상이었다. 호프만스탈은 「유럽의 이념 Die Idee Europa」(1917)에서 “국가기계는 서로 전쟁을 벌이지만, 조국들 간은 아니라는” 헤르더의 주장, “독일정신은 강력한 개인주의와 혼합된 세계시민주의다”라는 노발리스의 주장을 빌어 인문주의적 보편성을 강조하는 독일정신에게 “민족적 감성은 편협한 감성일 뿐 아니라 비도덕적인 감성”(1979a, 45)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하나의 단위로서 유럽은 지리적인 것도, 인종적 민족적인 것도 아니며, 지고의 정신적 자산을 공유하는 광역의 시민공동체로부터 비롯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정신적 유럽문명공동체로 그는 첫째, 이교도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시민공동체 *civitas dei*(*Gemeinbürgerschaft der Christen gegen die Heiden*), 둘째, 르네상스 이후 높은 정신적 실체의 라틴어 문자 문화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 *res publica litteraria* (*Gemeinbürgerschaft aller an der Latinität der höheren geistigen Existenz beteiligten*), 그리고 셋째로 바로 신성한 도덕성을 유럽적 규범으로 지향하는 윤리화된 민족들의 시민공동체 (*Gemeinbürgerschaft der gesitteten Völker für die Heiligkeit der Sittlichkeiten als eines (...) rein europäischen Kodex*)(1979a, 45)를 꼽는다. 그러면서 이 세 번째 유럽정신은 신성로마제국을 거쳐 독일민족이 지켜온 공동자산이라고 주장한다. 이 세 번째 정신적 유럽은 ‘자연’이며 ‘인간성’이고, 그의 새로운 열정은 ‘관용’이며, 이 유럽에서 가장 신성한 것은 ‘이해, 허용, 용서’라는 것이다. “유럽이 아니라, 유럽이라는 이름으로 인류(인류라는 이름으로 신적인 항구적 존재, 신 자체가 선포되었다”(1979a, 46)고 강변한다. 그런데 이 통합적인 정신적 유럽은 전쟁 전 유럽의 현실에서 거의 사라지고 “그림자처럼”(1979a, 48)느껴졌는데, 그

것은 이 세계에서 개인이 아니라 “유용성”이 압도하며 그의 남은 문명적 소명에 “조국이라는 근심거리”(1979a, 48)가 달라붙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건강, 안전, 장수라는 세 가지 우상”이 지배하고, “모든 것이 돈에 종속되는”, 돈이 “보편적 최종목적”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유럽에 대한, 개인주의, 기계주의, 중상주의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아직 현존하는, 태초이자 시대와 무관한, ‘무시간적’ - 파라다이스인 아시아로 시선을 향하게 되었다”(1979a, 49)는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존재의 목적과 수단이 전복되고 개인의 정신이 억압된 타락의 시대의 몰락은 피할 수 없고, “새로운 유럽적 이념: 새로운 현실”로 나아가기 위해 세계대전이라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신적 원리로서 *Leiden als göttliches Prinzip*”(1979a, 52) 유럽과 세계에 가해졌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간략히 소개한 호프만스탈의 유럽문명비판과 새로운 하나의 유럽에 대한 생각은 니체의 유럽 담론을 계승하는 것이다. “유럽을 지구의 정신적 기본색깔”로 느끼며, “유럽적인 것을 민족적인 것이 늘 견주고 교정 받아야 할 절대적 기준으로 정립한 *das Europäische als der absolute Maßstab aufgestellt, das jeweilig Nationales immer wieder an ihm gemessen und korrigiert*”(1979a, 53) 특별한 창의적 개인의 대표적 예로 호프만스탈은 스스로 니체를 꼽는다. 알다시피 유럽의 대중적 정치경제와 물질문명에 대한 니체의 비판은 19세기 말 자유주의적 보수 부르주아 지식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이는 20세기 초 보수혁명이라는 정치적 정신혁명 이념이 탄생하는데 중요한 자양분으로 작용하였다.

호프만스탈에 따르면 18세기 독일문화의 보편적 인문주의와 탈민족적 세계시민주의의 유산을 새롭게 부활시킬 책임자는 바로 오스트리아인들이다. 왜냐면 오스트리아야말로 독일민족의 확장과 개방성의 역사의 산 증인으로, 도나우를 따라 건설된 중세의 교회와 수도원들, 17세기 이래 역시 도나우를 따라 슬라브인들의 거친 황무지로 이주한 슈바벤의 농민들, 동유럽 도시와 영주들로부터 초청받은 독일의 관리, 기술자, 수공업자들, 신성로마제국과 30년 전쟁, 유럽을 지켜낸 터키인들과의 전쟁 등의 결과가 고스란히 오스트리아의 현재에 남아있기 때문이다(1979a, 392 이하). 로마제국의 북동쪽 변방이면서 신성로마제국의 중심 국가였고, 독일인 이탈리아인 슬라브인들이 공존하는 오스트리아는 그 자체가 “유럽을 지키려는 천년의 투쟁이며, 유럽을 관통하는 천년의 소명이며, 유럽에 대한 천년의 믿음 *tausendjähriges Ringen um Europa, tausendjährige Sendung durch Europa, tausendjähriger Glaube an Europa*”(1979a, 54)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IV. 나오는 말

제1차 세계대전이 단순히 군사동맹 논리에 의한 하나의 기계적 전개과정이지도 또한 오로지 전통적 군대 엘리트들의 정복야욕에서만 비롯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광범위한 부르주아 계층이 전쟁을 정치적 헤게모니를 획득할 기회로 이해했고, 부르주아 지식인들은 정신적 헤게모니를 잃지 않기 위해서 민족주의와 문명 제국이론에 근거한 집단적 정체성과 도덕적 정당성을 끊임없이 담론화 했다(뮌클러 2017, 40 이하). 예를 들면 베르그송은 “게르만 민족에 맞선 로마제국의 방어”라는 긴 역사적 연속성에서 “이 전쟁은 야만에 맞서 문명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데 반해, 토마스 만은 “독일문화의 깊이를 프랑스 문명의 천박함에 대비”하면서 전쟁에서 독일인들의 도덕적 정당성을 강변하였다. 다른 한편 영국인들은 “독일인들을 방어하고 물리쳐야 하는 ‘혼족’으로 지칭했다”(뮌클러 2017, 37). 1990년대 유고해체전쟁 역시 이데올로기 전쟁이기도 했다. 서유럽과 유럽연합은 유고연방의 해체를 막으려는 세르비아의 노력을 크로아티아인들과 슬로베니아인들의 민족독립을 억압하는 슬라브 제국주의로 비난했고, 그에 반해 세르비아는 서유럽 제국주의가 남동유럽에서 슬라브인들의 정치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한다고 비난하였다. 평화와 통합의 원칙이 드높이 울려 퍼지던 1990년대 폭발한 발칸의 갈등과 충돌,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혼란은 서구사회에 민족국가라는 정치적 구성 원리와 다른 정치경제적 질서가 존재하며 또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호프만스탈의 오스트리아-유럽 담론은 한편으로는 다민족·다문화적 제국의 탈민족적 사회구성체가 사라져가는 것을 안타깝워하며 그 진보적 정치문화적 의미를 강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유럽이라는 제국적 노스텔지어를 통해 오스트리아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의 현실적 상실을 보상하고 있다. 그것은 동유럽과 발칸 지역에서 19세기 후반 이래 지금까지 이어지는 민족의 향토와 민족국가의 영토와 제국의 통합적 정치사회 공간 사이의 위태로운 협상에 대한 하나의 흥미로운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차 문헌

- Hofmannsthal, Hugo von(1979a): Reden und Aufsätze II 1914-1924, GW in 10 Einzelbänden. Fischer Taschenbuch, Frankfurt a.M.
- ders.(1979b): Reden und Aufsätze I 1891-1913, GW in 10 Einzelbänden. Fischer Taschenbuch, Frankfurt a.M.
- ders.(1980): Reden und Aufsätze III 1924-1929, GW in 10 Einzelbänden. Fischer Taschenbuch, Frankfurt a.M.
- ders.(1979c): Gedichte-Dramen I, GW in 10 Einzelbänden. Fischer Taschenbuch, Frankfurt a.M.

2차 문헌

- 가라타니, 고진(2014): 제국의 구조. 중심·주변·아주변(조영일 역). 도서출판 b.
- 강성호 외(2009): 중유럽민족문제: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재단.
- 김재상(2013): 르네상스와 모더니즘-호프만스탈의 르네상스 희곡과 빈 모더니즘의 미학전략. 독일언어문학 61, 313-338.
- 남정애(2015): 호프만스탈의 「672번째 밤의 동화」에 나타난 유미주의 고찰. 독일문학 133, 5-23.
- 네그리, 안토니오/하트, 마이클(2001): 제국(윤수중 역). 이학사.
- 도스토예프스키(1999): 도스토예프스키의 유럽 인상기(이길주 역). 푸른 숲.
- 디오세기, 이슈트반(2013): 모순의 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외교사(김지영 역). HUEBOOKs.
- 뮌클러, 헤어프리트(2017): 파편화한 전쟁(장춘익/탁선미 역). 곰출판.
- 뮌클러, 헤어프리트(2015): 제국. 평천하의 논리(공진성 역). 책세상.
- 숨페터, 요셉(2011): 제국주의의 사회학(서정훈 역). UUP.(울산대학교 출판부).
- 앤더슨, 베네딕트(2003): 상상의 공동체 -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윤형숙 역). 나남출판.
- 이성훈(2003): 후고 폰 호프만스탈의 『하얀 부채』에 나타난 결혼의 문제. 독일문학 85, 281-302.
- 전진성(2001): 보수혁명. 책세상.
- 츠바이크, 슈테판(2014): 어제의 세계(곽복록 역). 개정판, 지식공작소.
- 타임 라이프 북스(2005): 제국의 종말(김훈 역). 타임 라이프 북스.

- Bach, Ulrich(2007): Sacher-Masoch's Utopian Peripheries. In: The German Quarterly, 80.2, 201-219.
- Balke, Florian(2014): Mit halbem Bewusstsein. In: FAZ vom 08.04.2014.
- Berman, Nina(1998): K.u.K. Colonialism: Hofmannsthal in North Africa. In: New German Critique 75, 3-27. (<http://www.jstor.org/stable/488576>)
- Broch, Hermann(1964): Hofmannsthal und seine Zeit. Zürich.
- Conrad, Sebastian; Osterhammel, Jürgen(Hg.)(2006): Das Kaiserreich transnational. Deutschland in der Welt 1871-1914. Göttingen.
- Mann, Thomas(2001): Betrachtungen eines Unpolitischen. Fischer TB, Frankfurt a.M.
- Maxwill, Peter(2015): Migranten aus Südosteuropa: Die Irrtümer in der Debatte über Balkan-Flüchtlinge. In: Spiegel Online 05. Aug. 2015. Zit. nach: <http://www.spiegel.de/politik/ausland/fluechtlinge-vom-balkan-viele-irrtuemer-ueber-asyllbewerber-a-1046504.html>.)
- Pawlowsky, Peter(2014): Hofmannsthals österreichische Idee. Vortrag im Otto-Mauer-Zentrum am 22. Oktober 2014.
- Schüppen, Franz(2011): Zur Entwicklung und Bedeutung des Begriffs "Europa" bei Hugo von Hofmannsthal. In: Neohelicon(2011) 38, 19-40.
- Thiel, Thomas(2014): Nicht an Luxus sparen. In: FAZ vom 19.04.2014. Zit. nach: <http://www.goethehaus-frankfurt.de/ausstellungen/wechselausstellung/oesterreichs-antwort-hugo-von-hofmannsthal-im-ersten-weltkrieg>
- Weiler, Bernd(2001): E Pluribus Unum? The Kakanian Intellectual and the Question of Cultural Pluralism, University of Graz.

Zusammenfassung

Die österreichisch-europäische Idee bei Hugo von Hofmannsthal

- Ein kosmopolitischer Traum oder eine imperiale Nostalgie?

TAK Sun-Mi (Hanyang Univ.)

Der Balkan, die Peripherie Europas, wo sich fremde Völker und Sprachen, Religionen und Kulturen kreuzen und treffen, hat in den 1990er Jahren wieder einmal so spektakulär auf sich aufmerksam gemacht wie vor etwa 80 Jahren beim Ausbruch des Großen Kriegs. Vor dem Ausbruch des 1. Weltkriegs galt der Balkan sowohl für das aufstrebende Deutsche Reich, das Zarenreich, das Habsburger Reich als auch für das zerfallende Osmanische Reich als die Bühne für eine weltpolitische Machtprobe. Diese weltpolitischen Konflikte waren noch durch die lokalen nationalen Unabhängigkeitsbestrebungen der nun aufgewachten Südslawenvölker überlagert und wirkten sich um so komplizierter aus. Hugo von Hofmannsthal, der geniale Modernist und Ästhet im Wien der Jahrhundertwende, äußert sich überraschenderweise oft und engagiert zu dem Großen Krieg, über die deutsche Nation und Kultur, die Aufgaben Österreichs und die Zukunft Europas. In seinen zeit- und kulturpolitischen Reden und Essays nimmt er eine Friedensvision für Europa in Aussicht, indem er von den historischen Erfahrungen des österreichischen Reichs ausgehend für eine transnationale Organisation des Staates plädiert. Seine transnationale gesamteuropäische Vision entpuppt sich aber bald als ein nostalgischer Tagtraum, denn er bringt die multiethnisch-europäische Idee ohne weiteres mit dem Führungsanspruch der deutschen Kultur in Verbindung. Diese Ambivalenz und Doppelbedeutung seiner österreichisch-europäischen Idee werde ich in diesem Aufsatz darlegen, um sie als einen interessanten, aber zugleich umstrittenen Lösungsversuch der Völkerkonflikte auf dem Balkan und in Osteuropa zu deuten.

Schlüsselbegriffe: Hofmannsthal, Österreich, Europa, Balkan, Nation

필자 이메일 주소: smtak@hanyang.ac.kr

논문투고일: 2017.05.15 | 논문심사일: 2017.06.05 | 게재확정일: 2017.06.15